

최근 북한 산업의 동향과 전망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klee@kiet.re.kr

북한경제는 2017년 이후 강화된 UN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경봉쇄와 그에 따른 무역 감소로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행 추정치에 의하면 2020년 북한경제는 -4.5% 성장하였는데, 수해 복구 등으로 소폭 성장한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산업이 적지 않게 후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조업을 비롯한 북한의 산업은 1990년대 경제위기에 붕괴 수준의 후퇴를 겪은 이후 제한적인 회복세를 계속해 왔지만, 2017년 이후 다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1. 2000년대의 북한 산업, 느리고 불균등하지만 회복세 지속

북한은 수자원, 석탄과 철광석 등 내부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토대로 에너지, 소재, 기계 및 최종재를 생산하고, 원유 등 내부에서 공급할 수 없는 자원을 사회주의 무역을 통하여 조달하는 극단적인 내부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1970년에 에너지, 광업, 중화학공업 및 경공업 그리고 농업 등 거의 모든 산업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좁은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공업화 전략의 결과, 금속 및 화학 산업을 비롯하여 기계, 경공업 등 북한의 모든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세계경제의 조류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1980년대 초중반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량이 정점에 달하기는 하였지만, 부문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대규모 설비투자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못하는 등 장기적인 침체가 시작되었다. 전력, 금속, 화학소재의 공급 부족은 만성화하였으며, 소비재의 배급제도는 유명무실화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산업, 특히 북한경제의 성장을 주도하였던 에너지 및 중화학공업은 붕괴에 가까울 정도로 후퇴하였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제한적인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그런데 북한경제의 회복은 산업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었다. 중앙정부 투자가 집중된 전력산업, 수출산업화한 광업과 시장화의 중심인 서비스업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전되었지만, 제조업, 특히 금속과 화학 등 소재산업과 기계산업의 회복은 가장 더디게 이루어졌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0년대에도 북한 산업의 회복세는 지속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뎠던 제조업도 경공업과 기계, 전기전자, 건설자재 등을 중심으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북중 임가공 사업을 통하여 섬유류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확대하는 내수시장을 토대로 식품가공산업도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소비재 시장에서 중국산 수입품의 점유율이 80% 이상에 달할 정도였지만 2010년대 중반경이 되면 종합시장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망에서도 북한산 제품의 비중도 적지 않게 되었다, 정보화의 진전 및 구매력이 있는 중간계층의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한 ICT 제품도 2000년대 초중반경까지는 수입 완제품이 주로 공급되었으나 점차 수입 부품을 북한에서 최종 가공하여 공급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기계산업에도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거의 전적으로 수입 기계에 의존하였지만 2010년대가 되면 내부에서 생산한 기계류의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2013년 정부터 설비의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설비의 확장 및 현대화나 신규 설비 건설 시 북한산 설비의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자동차, 지하철 차량, 어선 등 수송기계와 트랙터 등 산업용 기계의 공급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계산업의 회복은 2000년 초중반 이후 개발된 CNC 공작기계의 보급에 따른 생산역량 확충과 최종 소비재 시장 확대에 따른 기계·설비에 대한 시장 수요의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건설과 주택건설 증가 등으로 시멘트 등 건설자재의 공급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제한적이지만 지속하는 성과를 배경으로 2016년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통하여 연평균 성장률 8%의 고도성장을 추구하였다. 5개년전략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과제로서 전력공급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600만톤의 식량생산 목표를 설정한 농업, 과학기술과 인력양성 등을 강조하였다.

금속 및 화학 소재, 그리고 기계공업의 발전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지만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II. UN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 산업

북한은 2016년에 야심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등 빠른 성장을 추구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 이후 UN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력 수출상품의 수출을 통제하였으며, 전략적인 물자의 대북 수출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수출 주력 산업인 석탄광업과 철광업 등 광업과 섬유의류 산업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수출 통제에 따른 타격이 소수의 수출 산업에 집중된 것과 달리 수입 통제는 북한 산업 전반, 특히 자본재 산업 전반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금속, 기계 및 전자제품의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신규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임가공 수출이 금지된 섬유의류를 제외한 화학소재 및 식품·가공식품 등 수입 규제 대상이 아닌 중간재를 가공하는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 기준 2016년 3.9% 성장하였던 북한경제는 2017, 18년 각각 -3.5%와 -4.1% 성장하였는데, 수출입 통제의 영향을 직접 받은 광업과 중화학공업의 타격이 가장 컸다. 2017, 18년에 광업은 -11.8%와 -17.8% 성장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화학공업도 각각 -10.4%와 -12.4% 성장하였다. 건설업은 4%, 농림어업은 1% 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반면, 경공업은 2017년에는 0.1% 성장하였으며, 2018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2.6%에 그쳤다. 서비스업은 중국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소폭 성장하였다. UN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경제는 2019년에 0.4% 소폭 성장하였다. 이는 2년 연속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다가 농업, 경공업, 건설업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고, 서비스업의 성장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3년째 지속되는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경공업이 소폭 성장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공업은 설비 및 중간재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는데, 경공업용 중간재의 대부분이 대북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경공업의 생산이 유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또한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경공업이 제한적이지만 성장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III. 코로나19와 북한 산업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UN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하는 가운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고, 북한정부의 이동 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와 전면적인 국경봉쇄 등으로 북한의 경제와 산업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2019년 북한의 수입이 2016년 대비 80%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국경봉쇄로 2020년에 다시 전년 대비 74%나 줄어들었다. 2019년까지 수입 감소가 금속과 기계 등 규제품목에 집중된 것과 달리 2020년에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수입 중간재를 가공하여 내수시장에 공급하던 경공업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금속, 화학, 기계공업 등 자본재 공업이 경제제재로 이미 지속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버텨 주고 있던 경공업마저 수입 중간재의 공급 부족으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역량이 부족한 국내에서도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입 감소와 함께 북한 산업 전반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해와 태풍으로 농업과 광업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에 따라 2019년 소폭 회복한 북한경제는 2020년에는 다시 -4.5%라는 큰 폭의 역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에 소폭이지만 성장하였던 농림어업, 경공업, 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후퇴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태풍 피해 및 조업 감소 등으로 농림어업이 -7.6% 성장하였고, 외국인 관광 중단과 상업·유통업의 위축 등으로 서비스업이 -4.0% 성장하였으며, 수입 중간재 공급 감소 등으로 경공업이 -7.5% 성장하였다. 강수량 증가에 따라 수력발전이 증가한 전력과 태풍 피해 복구가 집중된 건설업만이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하였다.

IV.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향후 전망

2017년 이후 강화된 UN의 경제제재가 완화할 조짐이 없는 가운데 2020년에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와 산업은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북한정부는 2021년 초에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2020년에 종료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5년)을 발표하였다. 5개년전략이 야심적인 성장전략이었던 데 반해, 새로운 5개년계획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산업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조정 및 완충기 계획의 성격이 강하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공급확대 및 생산역량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북한이 5개년계획에서 소재산업 중심의 투자전략을 세운 것은 경제제재와 코로나19로 악화된 현재의 대외 경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금속 및 화학 소재의 자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북한산업의 현상 유지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속 및 금속제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화학 소재의 수입 의존도는 이보다 더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제재와 국경봉쇄로 금속 및 화학 소재 수입이 중단되었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공업의 생산활동 위축을,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산업 전반의 생산역량 위축과 설비 상태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5개년계획에서 북한은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로 추가 건설, 순천화학 연합기업소의 대규모 메탄올 공정 전설 완공과 촉매 자급화 등을 통하여 소재 생산과 생산능력 확충을 추구하고 있지만, 경제제재에 따른 설비와 기계류의 수입이 쉽지 않고, 재원 및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장 중간재의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원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통하여 경공업 등의 생산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일부 식품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국산화가 가능한 원자재가 많지 않고, 재자원화를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는 제한적이고, 질도 보장하기 어렵다. 5개년계획은 금속과 화학 공업에 중앙정부 재정을 집중 투입하면서 평양 5만 세대 주택건설을 포함한 건설 사업 확대, 지방경제 활성화 그리고 관광산업 등을 통하여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021년 중으로는 다소 완화하고, 그에 따라 북중무역이 부분적으로라도 재개하면 상황이 다소 개선될 수는 있을 것이다. 정부의 통제하에 중간재 수입이 다소라도 늘어나면 섬유류 및 식품가공 등 경공업의 생산활동도 제한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인 관광이 재개되면, 서비스 산업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UN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나 해제가 없이는 북중무역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경제의 회복이나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금속 및 화학 공업의 공급 역량 확충은 설비의 수입과 기술 도입 없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수출 산업이 봉쇄된 상황에서 수입 원자재를 이용하는 내수용 산업이 한계에 도달하는 것도 시간 문제이다. 상대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낮은 전력, 농업 및 수송 부문만 유지되면 북한경제가 최소한의 작동이 가능하므로 당장은 1990년대와

같은 경제붕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진전과 그에 따른 대외 경제관계의 개선이 늦어지면 북한 경제와 산업의 회복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